

국정뉴스

문 대통령 마스크 생산업체 방문

“검역현장이 방역의 최일선이라면 마스크 생산업체는 후방기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 방문은 마스크 관련 긴급수급 조정 직후 마스크 생산 업체와 판매 업체 등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공장 도착 후, 안내에 따라 방진 가운과 방진모를 착용한 뒤 마스크의 원단 재단, 합체, 접합, 검수 등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원자재 창고로 이동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모두 들은 대통령은 “의료현장이나 검역현장이 방역의 최일선이라면, 여기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후방기지”라고 말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스크 5부제 협조 당부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문재인 대통령은 3월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마스크 5부제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여러모로 불편하고, 1인당 1주 2매의 분량이 부족한 분도 많으실 것”이라면서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취하게 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현장과 의료진, 취약계층, 대구·경북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고충이 있어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지난 3월 6일부터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의 행동요령이 변경되어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주거

한국자유총연맹

우)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70)7122-8048

◆시·도지부 연락처

서울 (02) 849-7871

부산 (051) 808-7960

대구 (053) 621-9880

인천 (032) 868-0113

광주 (062) 672-5004

대전 (042) 242-7601

울산 (052) 276-4400

세종 (044) 865-4522

경기 (031) 235-6166

강원 (033) 254-6670

충북 (043) 253-7770

충남 (041) 881-6045

전북 (063) 252-1797

전남 (062) 654-2340

경북 (054) 973-6312

경남 (055) 282-2332

제주 (064) 751-0191

자유칼럼

한미연합연습(RSOI)의 통일을 위한 변화와 의의



전인범 |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전 육군특전사령관

작년 2019년 2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연습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중단을 선언했다. 곧이어 얼마 후 한미 군 당국은 매년 봄에 실시하던 RSOI 연습과 가을에 실시하던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연습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군의 이러한 갑작스런 중단조치에 대하여 안보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해마다 봄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던 RSOI연습은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의 약자로서 ‘연합전지원 연습’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에서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군사적 침범이나 중대한 도발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에 미 본토를 포함한 해외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을 전투지역 전방으로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연습은 이미 1994년부터 시작

로 실시되고 있다.

야외 기동훈련 중 대규모 공중 기동훈련인 맥스썬더 훈련도 한반도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상태의 완화를 위해서 축소된 규모로 실시하거나 아예 취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한미 연합연습 중단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北, 최소한의 방어적 연합훈련 비난 작년 2월 싱가포르 美-北 합의 위반 아냐

되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유엔군사령부에서는 이러한 훈련과 연습을 사전에 북한에 통보한다. 또한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모든 훈련과 연습과정을 관찰하고 공격성 여부를 포함하여 유엔본부에 관찰 결과를 보고한다. 이처럼 한미군이 함께하는 대규모 종합훈련이나 연습은 한반도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참모훈련과 야외 기동훈련이 따

북한이 우리의 연습체계를 몰라서 하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양보를 괜히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다.

우리는 이 같은 두 개의 종합훈련 대신 여러 개의 작은 참모훈련과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군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말까지를 1기, 7

월부터 9월 말까지를 2기로 나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곧 실시 예정인 참모연습에 대해서도 ‘미북간의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에서 미북간에 있었던 연습 중단선언은 충실하게 지켜졌으며 우리가 지금 실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능력 유지를 위한 연습일 뿐이다.

또한 과거에는 이 정도의 연습을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군인에게 있어서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군대는 참모훈련과 부대 기동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한미가 실시하는 각종 연합훈련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그 성격 자체가 방어적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마저도 북한이 비난하고 시비를 하는 대상이 된다면 그 진의를 의심해 봐야 한다. 그리고 당당하고 확고하게 우리 입장을 북한측에 설명해야 한다.